

저동어화(苧洞漁火)

고대 그리이스의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가장 빛나는 업적 가운데 하나가 삼평방(三平方)의 정리를 증명한 것이라 하며, 후일 이 정리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부르게 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 음악에서 음계의 기본이 되는 옥타브(Octave: 8도 음정)를 발견한 사람이 피타고라스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는 한 줄의 현을 반으로 잘라 튕기면 본래의 음 보다 정확히 “8”도 높은 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응용하여 옥타브를 알아 낸 것이다.

“8”이라는 숫자는 옛부터 인간생활에 묘한 분위기를 주어왔다. 사람의 한 평생의 운수를 8자(八字)라 하고, 주역(周易)의 8괘(八掛)는 작은 우주 곧, 인간을 상징한다. 불타의 가르침 가운데 그 구체적인 실천 덕목을 8정도(八正道)라고 하고, 노아(Noah)의 자손들이 하늘까지 쌓고자 했던 바벨탑에는 8개의 층계가 있다. 키가 머리 길이의 8배가 되는 균형 잡힌 몸을 8등신이라 하여 미인의 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모든 일에 능통한 사람을 가리켜 8방미인이라 부른다. 국제노동기구 헌장으로 정한 표준 노동시간은 하루에 8시간이고,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 또한 8시간이다. 원소주기율표에서 보면 매 8번째 마다 비슷한 성질의 원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원자번호 8번은 전 우주 원소의 86%를 차지하는 수소도 아니고, 대기 중에 76%나 존재하는 질소도 아닌 바로 산소이다. 산소는 인간이 호흡하며 살아가는데 있어 필수 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었을까...

한 나라 또는 한 지방의 가장 아름다운 경관을 “8경”이라 부른다. 맑은 시냇물이 흘러서 경치가 좋다는 간성의 “淸澗亭”, 경포호수의 달밤 경치가 일품인 강릉의 “鏡浦臺”, 신선이 노닐었다는 고성의 “三日浦”, 오십천 냇물과 조화를 이룬 삼척의 “竹西樓”, 의상대의 일출로 잘 알려진 양양의 “洛山寺”, 탁 트인 동해를 바라보는 조용한 정자 울진의 “望洋亭”, 6각형 수정 바위가 가관인 통천의 “叢石亭”, 소나무 사이에 비치는 달과 바다의 조화 평해의 “月松亭”... 이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 명승지로 꼽히는 관동8경 그것이다. 이 밖에 남한강 상류의 단양8경, 금강 상류의 양산8경, 개성의 송도8경, 서울의 남산8경, 설악산의 설악8품도 8경이란 이름으로 유명하다.

독도, 성인봉, 봉래폭포 등과 함께 “울릉8경”으로 꼽히는 “苧洞漁火”는 해운대의 달집태우기, 화순(和順)의 적벽낙화놀이와 같이 불(火)이 있는 명승이다. 오징어 철인 가을이 되면 울릉도 섬주위에 각지에서 모인 배들이 제 각기 십만 킬로와트나 되는 전등을 켜놓고 오징어 떼를 유혹 하는데 이 때의 밝은 불빛은 인공위성에서도 똑똑히 보일 정도라고 한다. 달이 밝아 오징어가 잘 안잡히는 “달밝이” 때는 동해안 유일의 어업전진기지인 울릉도 저동항에 1,000여 척의 원양어선들이 몰려들고, 이들이 밝히는 불로 현란해진 야경을 苧洞漁火라 부른다. 불(火)은 때로는 세상살이의 아름다움이기도 하다.

金東一 / 危險管理部 課長